

# 중국 조선족의 한국전통음식 인식유형의 변화 추이와 명절음식 선호도<sup>+</sup>

박영선<sup>1</sup> · 정영숙<sup>2\*</sup>

<sup>1</sup>대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sup>2</sup>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Perceptional Trend and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Holiday Food of China-Korean in Yanbian Area<sup>+</sup>

Young-Sun Park<sup>1</sup>, Young-Sook Chu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trition, Daegu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erceptual patterns of Korean traditional food for China-Korean housewives in Yanbian area and to compare the preference for traditional food of Korean national holidays between the perceptual patterns. Data were collected from 261 China-Korean housewives in the Yanbian area and cluster analysis was used. The results revealed two different patterns, i.e., tradition-oriented vs. modern-oriented. Descriptive statistics showed that perceptual patterns were likely to vary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background. Also, perceptual patterns were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preference of traditional food of national holidays i.e., new years day, first full moon of January, thanksgiving day, han-shik (the 105th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and dong-gi (the coldest winter solstic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erceptual patterns as well as preference of traditional food of national holidays were discussed, and future implications for food nutritionists and Asia marketers were provided.

**Key Words :** China-Korean housewives, Yanbian, Korean traditional food, tradition-oriented pattern, modern-oriented pattern, Kimchi

### I. 서 론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를 분류하면 절후(節候)에 따라 특별히 차려서 계절과 음식을 조화시키고 풍류를 즐기는 절식(節食)과 시식(時食)이 있다. 이러한 전통음식은 한 사람이 출생하여 生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 겪는 몇 고비의 과정을 의미 있게 하는 출산과 혼례, 상례와 제례 등의 통과의례 음식과 건국 이래 대대로 이어 내려온 궁중음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우리는 전통음식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조선족들은 중국이라는 특수지역에서 다른 민족을 의식하며 그들과의 대비 속에서 생활하므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족음식이라고 일컫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전통 식생활문화의 가치에는 네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생명유지, 종족보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타당성과 합리성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둘째, 오랜 생활역정의 체험을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이므로 현대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각 민족만이 갖는 개성이 있어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계화·대량화에서 초래되기 쉬운 문화의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다. 넷째, 각 민족들로 하여금 동질성·소속감·심리적 충족감을 갖게 하므로 문화유산으로 소중할 뿐 아

니라 미래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다<sup>2)</sup>.

중국 연변거주 조선족은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므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접촉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또한 타민족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세끼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며, 둘째, 상차림의 풍습(반상, 손님상, 돌상, 잔칫상, 회갑상, 명절상, 연회상, 제삿상 등)이 독특하다. 셋째, 아름답고 고상한 식사예절을 가지며, 넷째, 배불리 양껏 먹는 전통적 풍습이 있다. 다섯째, 취사작업은 전적으로 여성의 담당하여 남자는 바깥일을 맡아하고 부엌에 드나드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긴다. 여섯째, 민속적인 음식금기풍습을 갖는 등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의 특성을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문화와 습속(習俗)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과정 속에 있다. 중국 조선족의 식생활은 전통적인 음식문화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한족 음식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족도 마찬가지이므로 부동한 민족문화의 접촉은 상호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이중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은 이러한 이중적 음식문화생활 속에서도 대다수는 전통적 음식문화 생활을 위주로 하고 있다.

<sup>+</sup>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aegu University in 2005.

\*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ook Chu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ersity, 15 Naeri-ri, Jinryang-eup Kyongsan-shi, Kyongbuk KOREA 712-714, Korea Tel : 82-53-850-6815 Fax : 82-53-850-6819 E-mail : annach@daegu.ac.kr

연변은 지리적으로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 유산은 한민족(韓民族)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라는 특수지역이다. 또한 정치·사회 및 사상적으로 북한에 더 밀착될 수밖에 없었던 연유로 개방화·서구화된 우리 사회와는 달리 폐쇄된 사회체제로 인해 기본적으로 한민족 고유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래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채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전해진다<sup>6),7)</sup>. 식생활문화의 전통성은 거주지역의 이동에 따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변화와 본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거나 퇴적층으로 숨어 버린 것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해외 교포들의 식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의 하나인 조선족의 식문화의 경우도 조선민족의 설명하고도 풍부한 특색을 바탕으로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식문화 속에서 독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북부 지역의 각 민족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한민족의 전통계승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민족성으로 보아 전통 식생활 풍습과 관습이 잘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과 변화 추이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주부들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인식구조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인식유형에 따라 한국전통 명절음식의 선호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민족생활풍습인 그들의 전통 식문화 양상의 실상을 알아보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민족공동체적 심성(心性)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식품마케팅 차원에서 식품산업의 미래 방향과 지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부이며, 자료 수집은 1993년과 2000년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1993년 자료는 8월부터 12월에 연변대학교 朝文學部 학생 10명에게 각각 설문지 20부씩 배당시켜서 200명의 조선족 주부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 자료 역시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주부이며, 같은 시기인 8월에서 12월까지 연변대학교 조선학부(朝文學部)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할당하여 조선족 주부 300여명에게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배부한 다음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중 부실 기재되거나 설문 문항의 응답이 일관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26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1992년 동안 연변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대인면접법(personal interview)을 적용하여 실시한 탐색 조사(exploratory survey)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탐색 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1992년 당시 연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탐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변대학 조선학부 교수들과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두 차례 거쳤고, 회의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한국전통음식과 명절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최저값 1에서 최고값 5점의 Likert형 척도로 구성되었다. 2000년 자료수집 대상은 1993년 표본추출 대상이었던 주부들의 흥은 동일 대상이고 흥은 거주지 이동 등의 이유로 교체되었다.

### 2. 분석방법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의 분석에는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이 적용되었다. 군집분석은 많은 케이스를 일정한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여 같은 군집에 속한 케이스의 유사성과 다른 군집에 속한 케이스 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통계분석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적용하면 전체 인식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주부들을 집단으로 결합시킨다. 만약 자료에 인식이 상이한 두 종류의 성향이 있다면 두 개의 군집으로 뭉친다. 여기서 각 주부의 인식요인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유사성향을 가진 주부들끼리 결합시킨다.

결합의 근거는 각 인식 요인에 대한 평균점수(mean value)를 기초로 수행된다. 인식점수의 동질성을 측정하는 데는 유클리드 거리자승법(squared euclidean distance)이 사용되었고, 동질적 성향을 지닌 주부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월드 군집법(Ward's method)이 적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군집 중심 간의 거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군집의 중심과 가장 가까운 군집에 새로운 개체를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군집분석은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dendrogram을 이용하여 자료에 몇 개의 유형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Dendrogram은 X축은 군집의 수를, Y축은 fusion coefficient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각 충별 간의 가중기경사도에 따라 최적 군집 수(optimal cluster)수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클리드 거리자승법을 적용하여 얻는 dendrogram으로 파악된 군집 수를 지정해 준 뒤 quick cluster 분석을 실행하여 인식유형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측정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파악된 인식유형 간의 명절 음식 선호도 차이는 t-test를 적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ver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사회적 계층 귀속의식은 75.7%가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상류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5.3%이며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9.0%로 분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교는 무교가 89.6%로 대부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개방화가 비교적 최근에 되었고 실제로 그들과 면접을 해보면 체제(體制)적으로 종교나 신앙심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usewives in the sample  
(n=261)

Variable	Categories	N	%
Perceived social class	High class	40	15.3
	Middle class	198	75.7
	Low class	23	9.0
Religion	Buddhism	6	2.1
	Christian	15	6.3
	Confucian	6	2.1
	No religion	234	89.6
Occupation	Teacher & government workers	51	19.5
	Clerical workers	38	14.5
	Technical workers	57	22.0
	Self-employed	27	10.5
	Farm workers	51	19.5
	Housewives	37	14.0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7	2.7
	Junior high school	46	17.8
	High school	104	39.8
	College (2 years)	67	25.5
	More than college	37	14.3
Family type	Nuclear family	241	92.2
	Extended with husband's family	16	6.3
	Extended with wife's family	7	1.6
Hometown	China	204	78.4
	South Korea	18	6.7
	North Korea	39	14.9
Mean income	Unit: China Yuan	1,876 Yuan	
Age	Mean	45 years	
Family size	Mean	3.3 persons	
Years of marriage	Mean	21 years	

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관심은 있고 앞으로 가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믿고 있는 종교 중에는 기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부의 직업은 기술직, 교사 및 공무원, 농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업주부의 비율은 14.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과(문)대학 졸업으로 25.5%이며, 중학교 졸업도 1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92.2%가 핵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7.7%가 배우자 가족이나 친정 가족이 포함된 확대가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부의 고향은 연변, 연길시, 길림성 등의 중국이 78.4%로 이들의 다수는 이민 2세들이며, 21.6%의 주부

는 태어난 곳이 남한과 북한인데 남한보다 북한이 고향인 경우가 다소 더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1,876 위엔(Yuan)이고, 주부의 평균 연령은 4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는 평균 3명이고, 결혼경과 연수는 평균 21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의 변화추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93년 자료와 200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항목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한국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과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전통음식의 우수성, 개발될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 등은 연도별 차이 없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전통음식 전반에 대한 인식,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음식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과 현대인의 식생활에 맞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수준은 1993년에 비해 2000년에 더 증가된 경향을 나타내어 연도별 변화추이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 3.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자료에서 2종류의 군집이 실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ble 3>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261명의 주부들 중 34.5%가 군집 1과 같은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65.5%는 군집 2와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군집 1에 속하는 주부의 항목별 인식이 군집 2에 속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항목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군집 1의 경우 한국전통음식의 종류와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상차림,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음식의 좋은 점에 대한 인식수준은 각각 4점 이상으로 군집 2에 비해 월등히 더 높았다. 한국전통음식의 계승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 없이 대체로 전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절기와 절기음식이 전통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류은순과 류경<sup>9)</sup>의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두 집단 모두 4점을 넘는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상대적 점수는 군집 1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한국전통음식을 현대인의 식생활 및 취향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군집 2가

&lt;Table 2&gt; Comparing Perception Between 1993 data and 2000 data

Items	Year	
	1993 M (SD)	2000 M (SD)
Korean traditional food	3.9 (1.4)	4.3 (1.2)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1 (1.2)	4.0 (1.2)
Assessment of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 foreign food	4.3 (0.9)	4.4 (1.4)
Develop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3.3 (1.1)	4.0 (1.5)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3.1 (1.6)	4.6 (0.5)
Need for modernizing Korean traditional food	4.2 (1.4)	4.7 (0.9)
Frequency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3.5 (1.6)	3.9 (1.5)
Number of cases	200	261

&lt;Table 3&gt; Results of cluster analysis: Perceptual patterns (2000 year data)

Items	Group	
	Tradition oriented M (SD)	Modern oriented M (SD)
Korean traditional food	3.8 (0.6)	3.5 (1.1)
Table arrange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1 (0.7)	3.4 (1.1)
Assessment of comparing Korean traditional food w. foreign food	4.2 (0.9)	3.4 (1.3)
Development for Korean traditional food	4.4 (1.2)	4.2 (0.8)
Impact of Korean traditional food on health	4.7 (0.6)	4.5 (1.1)
Need for modernizing Korean traditional food	3.6 (0.8)	4.7 (0.5)
Frequency of using Korean traditional food	4.7 (0.6)	3.2 (0.9)
Number of cases	90	171

4.7점으로 군집 1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군집 1에 속한 주부들이 군집 2의 주부보다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군집별 특성을 고려할 때 군집 1은 전통성 지향유형을 그리고 군집 2는 현대화 지향유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3. 한국전통음식의 인식유형과 식생활 문화와의 관계

#### 1) 인식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식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적 계층구속의식의 경우 전통성 지향유형은 상위층과 하위층 비율이 현대화 지향유형보다 더 높았다. 종교는 두 집단 모두 무교의 분포가 높았으며, 기독교 비율은 현대화 지향유형이 더 높았다. 고향 분포는 전통성 지향유형은 북한이 그리고 현대화 지향유형은 남한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직업은 전통성 지향유형은 농업, 교사 및 공무원의 비율이 높았고, 현대화 지향유형은 기술직, 사무직, 교사 및 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학력은 현대화 지향유형이 더 높았고, 월평균 소득과 연령은 전통성 지향유형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결혼 연수는 전통성 지향유형이 현대화 지향유형보다 5년 정도 더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통음식을 배운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변 조선족 조부들이 한국전통음식에 대해 듣고 배우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친정어머니이며, 그 다음이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웠다는 비율은 현대화 지향유형이 다소 더 높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배웠다는 비율은 두 집단 분포가 비슷하였다. 책을 통해 한국전통음식을 배웠다는 응답률은 전통성 지향유형(10.4%)에 비해 현대화 지향유형(17.2%)이 더 높았다.

#### 2) 인식유형별 명절음식 선호도

##### (1) 설 명절 음식 선호도

명절 중 설날에 먹는 음식과 선호도를 인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설 명절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통성 지향집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음식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전형적 설음식인 떡국과 만두의 선호도는 두 집단 모두 4점 이상이며 특히 만두의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 뿐 아니라 현대화 지향 집단도 4.5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어 대부분의 가구가 설날

&lt;Table 4&g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each group

Variable	Group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n=90)	Modern oriented housewives (n=171)
Perceive social class :		
High class	26.5	10.5
Middle class	59.0	83.3
Low class	14.5	6.2
Religion :		
Buddhism	3.8	1.3
Christian	0	9.3
Confucian	1.3	2.6
No religion	95.0	86.8
Family types :		
Nuclear family	92.7	91.4
Extended with husband's family	6.1	6.7
Extended with wife's family	1.2	1.8
Hometown :		
China	80.4	77.1
North Korea	8.0	12.7
South Korea	11.6	10.2
Occupation :		
Teacher & government worker	20.4	18.6
Clerical workers	10.7	18.6
Technical workers	16.5	27.8
Self-employed	12.6	8.2
Farm workers	26.2	12.4
Housewives	13.6	14.4
Education level :		
Elementary school	3.5	2.5
Junior high school	30.2	11.0
High school	32.6	42.9
College (2 years)	15.1	31.3
More than college	18.6	12.3
Income (mean yuan)	2,078	1,494
Age (mean years)	50.1	40.6
Family size (mean persons)	3.2	3.5
Years of marriage (mean years)	25.6	20.4

에 떡국과 만두를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절기와 절기음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설 명절에 많이 이용하는 음식은 만두와 떡국

&lt;Table 5&gt; Personal Impact on Learning Traditional Food

Category	Group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n=90)	Modern oriented housewives (n=171)
From husband's mother & grandmother	27.3	18.5
From wife's mother	57.1	57.3
From school	1.3	3.1
From mass communication	3.9	3.8
From books	10.4	17.2

이라는 선행연구<sup>10)</sup>의 결과와 일치한다. 편육, 족편, 빈대떡 등은 전통성 지향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며 그 중 경단 및 단자류, 약과, 수정과, 수수전병 등은 특히 집단간 선호도 차이가 큰 음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물과 잡채, 인절미 등의 음식은 두 집단 모두 4.5에 가까운 선호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김치에 대한 선호도는 두 집단 매우 높으나

&lt;Table 6&gt;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Holidays Food : New Years Day

Items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M (SD)	Modern oriented housewives M (SD)	t-value
떡국	4.14 (0.9)	4.06 (0.7)	0.67
만두	4.49 (0.7)	4.59 (0.6)	1.28
편육	4.11 (1.0)	3.47 (1.7)	3.35***
족편	4.10 (1.1)	3.53 (1.5)	2.41*
전유어적	3.91 (0.9)	2.75 (1.5)	3.04**
육회	4.05 (1.1)	3.49 (1.5)	2.35*
빈대떡	4.08 (1.1)	3.25 (1.5)	4.95***
누름적	3.64 (1.2)	2.33 (1.6)	2.82**
화양적	3.63 (1.0)	2.69 (1.7)	2.15*
찜	4.23 (1.1)	4.14 (1.0)	0.61
경단, 단자류	4.25 (1.6)	2.84 (1.5)	4.17***
약과	4.50 (0.9)	2.64 (1.2)	4.96***
정과	4.14 (1.3)	3.63 (1.6)	2.90**
강정	3.33 (0.7)	2.89 (0.9)	0.36
다식	4.25 (0.9)	3.63 (1.3)	2.40*
나물	4.42 (0.9)	4.45 (1.0)	0.28
식혜	4.33 (1.7)	3.78 (1.1)	3.26**
수정과	4.23 (1.4)	2.95 (1.6)	5.15***
술, 세주	4.80 (1.3)	4.15 (1.4)	4.43***
잡채	4.44 (0.8)	4.56 (0.9)	1.05
인절미	4.35 (1.3)	4.43 (1.5)	0.74
시루떡	4.16 (0.7)	4.11 (0.9)	0.47
주약	3.50 (1.6)	2.28 (1.5)	2.25*
수수전병	4.20 (1.3)	2.27 (1.5)	6.48***
깍두기	4.51 (1.4)	4.38 (1.3)	1.13
배추김치	4.79 (0.9)	4.67 (0.8)	1.38
나박김치	4.54 (1.1)	4.03 (1.3)	3.89***
장김치	4.77 (1.2)	4.01 (1.4)	4.59***

\*p&lt;0.05, \*\*p&lt;0.01, \*\*\*p&lt;0.001

김치종류에 따라 선호도 그 자체는 집단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깍두기와 배추김치에 대한 선호도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특히 배추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두 집단 (4.79 vs. 4.67) 모두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추김치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연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Li 등<sup>11)</sup>의 연구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나박김치와 장김치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통성 지향집단은 4.54 vs. 4.77의 높은 선호도를 보인데 비해 현대화 지향집단은 4.03 vs. 4.01로 상대적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집단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정월대보름 음식 선호도

연변 조선족 가정에서 대보름에 먹는 음식이 <Table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곡밥에서 귀밝이술에 이르기까지 먹는 음식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대보름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 역시 전통성 지향집단이 현대화 지향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곡밥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집단이 다소 더 높으나 현대화 지향집단도 4.69로 매우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식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집단이 더 높으나 다른 음식에 비해 상대적 선호도는 다소 낮았다. 부럼에 대한 풍속은 전통성 지향집단은 4.13인데 비해 현대화 지향집단은 2.57로 집단간 차이가 큰 음식에 속한다. 대보름에도 김치는 선호되는 음식이며 특히 배추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두 집단 모두 4.6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박김치는 현대화 지향집단보다 전통성 지향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추석 명절 음식 선호도

중국 연변 조선족 가정에서 추석에 먹는 음식들과 이들 음식에 대한 집단별 선호도는 <Table 8>에 요약되어 있다. 햅쌀밥은

&lt;Table 7&gt;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Holidays Food : Full Moon of the 15th January

Items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M (SD)	Modern oriented housewives M (SD)	t-value
오곡밥	4.90 (0.4)	4.69 (0.8)	2.53*
나물	4.42 (1.1)	3.95 (1.2)	3.22**
김구이	4.69 (1.1)	3.68 (1.4)	6.13***
약식	3.89 (1.4)	2.46 (1.6)	2.34*
유밀과	4.01 (1.5)	3.09 (1.5)	4.26***
원소병	4.52 (1.1)	4.31 (1.4)	1.54
시루떡	4.10 (1.0)	3.84 (1.1)	1.99*
부럼	4.02 (1.5)	2.57 (1.6)	6.25***
쌈	4.13 (1.2)	3.52 (1.4)	3.21**
두부무침	4.11 (1.2)	3.63 (1.3)	3.32***
나박김치	4.40 (1.2)	3.79 (1.3)	3.84***
배추김치	4.69 (0.7)	4.59 (0.8)	1.03
귀밝이술	4.83 (1.0)	4.53 (1.2)	2.55**

\*p&lt;0.05, \*\*p&lt;0.01, \*\*\*p&lt;0.001

<Table 8>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Holidays Food : Thanksgiving Day

Items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M (SD)	Modern oriented housewives M (SD)	t-value
햅쌀밥	4.63 (0.8)	4.62 (0.8)	0.08
토란탕	4.22 (1.5)	2.97 (1.6)	5.04***
닭찜	4.47 (1.0)	3.94 (1.2)	4.01***
잡채	4.33 (1.0)	3.93 (1.4)	2.51**
전유어	4.01 (1.3)	3.03 (1.6)	5.33***
송이산적	2.75 (1.6)	2.76 (1.6)	0.10
누름적	3.80 (1.4)	2.35 (1.6)	1.88
김구이	4.04 (1.3)	3.74 (1.5)	1.54
나물	4.21 (1.0)	4.26 (0.9)	0.34
밤단자	3.01 (1.0)	2.38 (1.2)	0.60
송편	4.06 (1.2)	3.76 (1.5)	2.03*
약식	4.01 (1.3)	2.55 (1.6)	6.14***
시루떡	4.03 (0.8)	3.78 (1.1)	2.48**
토란단자	4.33 (1.0)	1.76 (1.4)	6.58***
인절미	4.20 (1.1)	4.08 (1.3)	0.85
편육	4.14 (1.3)	3.45 (1.5)	3.24**
빈대떡	4.09 (1.2)	3.55 (1.6)	3.18**
깍두기	4.39 (1.0)	4.28 (1.2)	0.79
배추김치	4.63 (0.8)	4.55 (0.8)	0.92
나박김치	4.63 (1.2)	3.65 (1.6)	4.85***
생실과	4.63 (1.2)	4.02 (1.4)	3.51***
강정	3.01 (1.4)	2.46 (1.7)	0.53
다식	4.11 (1.5)	2.39 (1.7)	6.87***
대추초	2.82 (1.5)	2.25 (1.6)	0.72
배화채	3.01 (1.2)	2.10 (1.4)	0.88
배숙	3.31 (1.5)	2.24 (1.5)	0.64
식혜	3.94 (1.5)	3.27 (1.6)	2.52**
수정과	4.12 (1.7)	2.64 (1.6)	6.46***

\*p<0.05, \*\*p<0.01, \*\*\*p<0.001

집단간 차이 없이 모두 4.6 정도의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집단 간 차이 없이 선호도 4.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음식은 인절미와 나물 종류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송편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집단은 4.06이고 현대화 지향집단은 3.76으로 전통성 지향집단이 현대화 지향집단보다 약간 더 높았다. 토란탕에 대해서는 전통성 지향집단이 현대화 지향집단보다 선호도가 월등히 더 높았고, 이 외에도 집단 간 선호도 차이가 특히 큰 음식은 약식, 토란단자, 다식, 수정과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석에도 김치는 여전히 선호되는 전통음식으로 깍두기와 배추김치는 집단간 차이 없이 두 집단 모두 매우 선호하는 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박김치는 전통성 지향집단은 4.63인데 비해 현대화 지향집단은 3.65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음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 강정, 배화채, 배숙, 밤단자, 누름적, 송이산적 등은 집단 간 차이도 없고 선호도 자체도 비교적 낮은 모습을 보였다. 식혜에 대한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집단이 현대화 지향

집단 보다 다소 더 높은 경향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에 알려진 것보다 선호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한식 음식 선호도

한식에 주로 먹는 음식은 <Table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술약주, 과일, 포, 식혜, 떡, 탕, 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음식에 대한 집단간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전통성 지향집단이 현대화 지향집단보다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집단간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음식은 술약주, 과일, 포, 적 등인데 특히 차이가 큰 음식은 포와 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혜, 떡, 국수, 탕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 (5) 동지 음식 선호도

연변 조선족 가정에서 동지에 먹는 음식은 <Table 10>에 요약되어 있다. 팥죽은 전통성 지향집단과 현대화 지향집단 간에 차이 없이 두 집단(4.75 vs. 4.73) 모두 매우 선호하는 절기음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절기음식 중 잘 알고 있는 음식 중의 하나가 팥죽이라는 선행연구<sup>11)</sup>의 결과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 동치미의 선호도는 전통성 지향집단은 4.21로 높은 반면 현대화 지향집단은 2.91로 상대적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단 및

<Table 9>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Holidays Food : Hanshik (105th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

Items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M (SD)	Modern oriented housewives M (SD)	t-value
술약주	4.89 (0.7)	4.37 (0.8)	2.05*
과일	4.90 (0.8)	4.56 (1.0)	2.94**
포	4.78 (1.5)	3.42 (1.6)	6.22***
식혜	4.01 (1.1)	3.81 (1.2)	1.08
떡	4.30 (0.8)	4.56 (0.9)	1.38
국수	4.10 (0.9)	4.09 (1.0)	0.71
탕	4.55 (1.1)	4.31 (1.2)	1.65
적	4.63 (1.4)	3.32 (1.6)	4.62***

\*p<0.05, \*\*p<0.01, \*\*\*p<0.001

<Table 10>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Holidays Food : Dong-gi (Coldest Winter Solstice)

Items	Tradition oriented housewives M (SD)	Modern oriented housewives M (SD)	t-value
팥죽	4.75 (0.7)	4.73 (0.7)	0.38
동치미	4.21 (1.4)	2.91 (1.6)	5.33***
경단 단자류	4.13 (1.3)	2.63 (1.7)	5.66***
팥시루떡	4.12 (1.2)	3.58 (1.4)	3.68***
생실과	4.37 (1.3)	3.63 (1.5)	4.05***
식혜	4.06 (1.2)	3.36 (1.6)	2.64**
수정과	4.22 (1.5)	3.01 (1.7)	4.85***

\*p<0.05, \*\*p<0.01, \*\*\*p<0.001

단자류에 대한 선호도 역시 전통성 지향집단과 현대화 지향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고, 팔시루떡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선호도 자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실과, 식혜, 수정과 등에 대한 선호도 역시 현대화 지향집단보다 전통성 지향집단이 더 높았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문화권에서 자치주를 형성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전통음식에 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절기음식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민족적 전통이란 측면에서 조선족 주부들의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식품 마케팅 차원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더불어 대대로 전수되어 온 전통과 절기음식을 글로벌화 하는데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고 판단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조선족 주부들은 우리의 전통 식생활 풍습과 관습이 비교적 잘 보존·계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조선족 주부들이 가지는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은 동질적 특성을 지녔기보다 두 가지 유형 즉 전통성 지향과 현대화 지향으로 구조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성 지향집단은 한국 절기음식의 종류와 전통음식으로 구성된 상차림, 외래음식과 비교한 한국음식의 우수성 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전통음식이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건강에 이롭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단간 차이 없이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식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1993년 자료와 2000년 자료의 분석 결과가 유사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일관성과 객관성이 있는 결과라는 것을 말해 준다.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한국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연변 조선족을 비롯한 다른 민족에게 알리는데 있어 각각의 음식이 건강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 명절 중 설날, 추석, 대보름, 한식, 동지 등의 명절은 연변 조선족도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명절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가 전통성 지향집단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설날에는 떡국과 만두를 비롯하여 나물, 잡채, 인절미 등을 선호하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에서 귀밝이술과 부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추석에 선호하는 음식은 합쌀밥, 송편, 약식, 토란단자, 다식, 수정과 등이다. 김치는 절기에 관계없이 매우 선호되는 음식이며, 김치류 중에서도 특히 배추김치가 가장 선호되는 한국전통음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동지 팔죽도 선호되는 음식 중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국 조선족의 경우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이 식생활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중국에 한국

전통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식품산업 종사자들이 조선족이 지난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유형과 선호하는 명절음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전통성 지향유형의 인식체계를 가진 주부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전통음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전통음식 중 나물류와 떡, 김치류, 팔죽 등은 현대화 지향집단도 상당히 선호하는 음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호나 취향에 맞게 전통음식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개혁·개방화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 소득수준 향상, 소비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가정 기능의 사회화 등으로 인해 식생활이 서구화하여 전통음식을 접할 기회가 줄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조선족의 식생활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는 식품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전통식품이 지난 고유성 및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현대화·대중화·과학화하여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킴과 아울러 중국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더욱 넓은 범위로 고유음식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 ■ 참고문헌

- 1) Shim, H.S. Community Naming and Population Distribution of China-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4.
- 2) Magrabi, F.M. and Chung, Y.S. Value and Food Consumption. New York, Praeger Publications. 2000.
- 3) Park, K.W. Clothing, Food, and Housing Habit of China-Korean. Jepmoondang. 1994.
- 4) Yanbian Korean Popular Customs Institution. Korean Popular Customs (Vol. 1). Yanbian University. 1991.
- 5) Lee, K.G. China-Korean, Anthropological Approach. Ilchogak. 1994.
- 6) Yoo, C.G. and Shim, H.S. Bakdo Mountain and China-Korean. Baksan Publication Company. 1993.
- 7) Kwang, J.W. Yanbian Excursion Guide. Yanbian University. 1992.
- 8) Park, Y.S. and Chung, Y.S., Korean Traditional Food Perception and Cultural Aspect of Korean Mongolian Housew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od Culture (20): 35-43. 2005.
- 9) Bae, L.S. and Chung, Y.S.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Program. Daegu University. 1998.
- 10) Lyu, E.S. and Ryu, K. Study of the Yanbian Korean Housewives' Knowledge of Korean Traditional Holidays Foods. Korean J. Dietary Culture 11(3): 327-337. 1996.
- 11) Li, S.J., Paik, H.Y., Kim, J.S., Wen, Y., and Joung, H.J.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Patterns of Korean-Chinese and Koreans. Korean J. Dietary Culture 16(4): 341-353. 2001.